



주간 제780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음력 2월 22일)



‘광남일보 제13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20일 광주 동구 호텔 아트하임에서 열린 ‘광남일보 제13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 및 수강생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2 담양군수 재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내가 바로 참 일꾼”...표심 잡기 치열

오는 4월 2일 열리는 담양군수 재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작년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패배 이후 철저부심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을 다시한번 공략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창출을 위한 결집을 호소하며 수성전에 나섰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거점 곳곳에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이날 담양군 담양읍 백동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담양군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여 창평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녀석을 부리는가 하면, “담양에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며 일꾼 역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우리 민주당은 국회 170석이 넘는 의석이 있다. 혁신당은 고작 12석 뿐”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고향에 머물면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담양을 만들 역량은 민주당에 있다. 더 풍족한 담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이규현 전남도위원의 천조 연설에 이어 유세 차량에 오른 이 후보는 담양 발전을 위한 여러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예비 후보자 때부터 군민 목소리를 적어놓은 14권의 노트가 있다. 청

민주당 vs 조국당...작년 영광·곡성 선거 이후 리턴매치 이재종 “170석 거대 의석 발판, 풍족한 담양 만들 터” 정철원 “지역 토박이 장점 살려 지역 발전 계획 완성”



담양군수 재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0일 담양군 창평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종(왼쪽)·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유세를 펼치고 있다.

와대 경력과 노트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담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 1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반드시 반영해 내겠다”며 “전남 담양을 부자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재선거를 초래한 민주당을 저격, 군의장 경험과 토박이라는 장점을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서양진 최고위원과 신장식 국회의원, 박용두 전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창평전통시장 일대에서 군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했다.

정 후보는 재선거를 초래한 민주당을 저격, 군의장 경험과 토박이라는 장점을

무기로 공격을 펼쳤다.

정 후보는 “담양군 조례에는 마을 이장에 출마하려면 1년 이상 마을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거철 갑자기 나타나 군수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상대 후보를 지적했다.

이여 “11년간 의정활동과 군의장 경험을 살려 담양 발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정 후보 지원에 나선 신장식 의원과 서양진 최고위원은 “선거 직후 시급한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책임자는 담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 후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군민들은 군수 책임자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군민은 “1년짜리 임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담양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유능하게 일할 수 있을지 비교하고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4월 2일, 사전투표는 28~29일 치러진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25일 오후 1시 55분부터 광주MBC로 진행된다.

담양군수 재선거와 더불어 △광양 다선선거(민주당 이돈건, 진보당 임기주, 자유통합당 박종열) △담양라 선거구(민주당 노대현) △고흥 나 선거구(민주당 김동규, 무소속 김재열) 선거도 함께 열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2025 프로야구 22일 개막

“야구야 반갑다” KIA, V13 스타트

KIA, 광주서 NC와 2연전

이범호 감독 “2연승 자신”

KIA 타이거즈가 22일 오후 2시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의 개막 2연전을 시작으로 2025 신한 SOL Bank KBO 정규시즌에 돌입한다. 올 시즌 두 번째 항해에 나서는 이범호 감독의 목표는 2연패다. ▶관련기사 3·5·12면

이범호 감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달리겠다”면서 “절대 1강이라 생각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IA는 두 번에 걸친 스프링캠프 프로 전력을 가다듬었다. 1차 미국 어바인에서는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소화했다. 2차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현지 프로팀 등과 연습 경기를 치르며 실전경험을 쌓아올리기에 집중했다. 이후 시범경기에서 4승 2무 2패 승률 0.667을 기록, 만족스러운 3위로 마감했다.

올 시즌 KIA의 마운드는 강력하다. 우선 지난 시즌 합류해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제임스 네일이 건재하다. 네일은 위력적인 스윙퍼가 장

점이다. 올 시즌 역시 강력한 구위와 다양한 변화구를 활용해 상대 타선을 요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외국인 투수 아담 울러는 캠프와 시범경기 기간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선보이며 정규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여기에 ‘대투수’ 양현종-윤영철로 이어지는 1~4선발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이의리의 부상으로 공백이었던 5선발 자리는 김도현으로 확정됐다. 김도현은 시범경기에서 2게임 7.1이닝 1승 1홀드 2실점(1자책) 평균자책점 1.23으로 활약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다. 트레이드로 합류한 조상우를 비롯해 황동호, 전상현, 최지민, 박도규 등 불펜도 질과 양이 모두 풍성하다.

타선에서는 김도영, 박찬호, 최형우, 김선빈 등 지난 시즌 맹활약했던 선수들이 그대로 포진해있다. ‘MLB 88홀런’ 거포인 새 외국인 타자 위즈덤 역시 활약 역시 기대된다. 이외에 김규성, 박재현, 박정우 등 든든한 백업 자원이 자리 잡고 팀 템스가 두터워졌다. 분석이다.

KIA는 NC와의 개막 2연전을 마친 뒤 25~27일 광주에서 키움이어즈와 3연전을 치른다. 28~30일에는 대전에서 한화이글스와 맞붙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현재, 한덕수 총리 24일 탄핵심판 선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관련기사 2·5·15면 헌법재판소는 20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현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

에 넘겼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현재가 내봉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 계속

제21회 영산강사랑사·도민

*** 제9회 나누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한마음 걷기대회

2025. 3. 29. (토) 09:00~11:3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3월 27일(목) 까지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370-7090

※ 휴일 시에도 진행합니다.
※ 해 열정은 여건이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주최·주관: 새시광남민회체육재단

주최·주관: 거란학교

주최·주관: 광남일보 TV

주최·주관: NCA

주최·주관: 광주광역시

주최·주관: 전라남도

주최·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주관: 전라남도교육청

주최·주관: 광주광역시체육회

주최·주관: 전라남도체육회

주최·주관: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주최·주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

주최·주관: 나주시 임업유계지역협의회